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변 양 석

농어촌진흥공사 정주권개발처장

1. 머리말

1980년대초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주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논의되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으로 계획의 공간단위를 면으로 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본 사업은 농어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이다.

2. 정주생활권 개발목표와 전략

1) 개발목표

농어촌의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과 기타산업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의 전략적 접근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위계적 질서인 정주계층은 농어촌 중심도시 - 중심도읍 - 중심마을 - 마을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고 도시근교·평야·산간지역별 개발 등 지역특성과 입지유형별로 다양하면서도 탄력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계획수립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기 위하여 군단위지역에서는 총량계획·부문별계획·추진계획으로 구성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면단위 지역은 상위 계획인 군계획이 제시하는 장기발전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담는 실행계획의 성격인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3) 사업추진 기본방침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투자재원과 지역적특성을 감안하여 2000년까지 1단계사업을, 2010년까지 2단계사업을 완료하도록 장기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양여금 총액의 7.6%수준의 할당액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재원확보가 제도화 되어 있다. 또한 중심마을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므로서 사업의 구체적 성과고양을 의도하고 있다.

3.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방향

1) 사업대상지역 및 시행주체

오지 및 도서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776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계획수립현황 및 결과 분석

본 사업은 대상지구선정 → 개발계획수립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 순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1995년까지 471개면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91-93년에 계획수립한 288개면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면당 평균 527억원의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수요중 가장 높은 부문은 마을기반정비부문(23%)인데 주민의식조사결과에서도 생활환경부문인 도로(32.2%), 주택환경(18.6%) 등에서 우선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소득작물개발(26.4%)이 가장 높게 자작되었다.

3) 사업시행실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에는 1개 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하여 30억원 수준으로 보조지원(지방양여금과 지방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신축에는 장기저리의 응자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시행기간은 3-5년으로 1993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299개 지구중 '94년 현재 사업이 착수된 지역은 287개면으로 94%의 착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76개면이 '9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다. '90년 착수이래 94년까지 7,4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이중 도로정비부문이 30%, 주택정비 21%, 마을기반정비에 19% 등 생활환경부문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유형주택을 74.3%가 희망하였고 55.8%의 응답자가 150평이상의 대지규모를 원하고 있었다. 또 55.6%의 응답자가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의 반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마을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정주권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소득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하여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과 사업시행전반은 군수(농어촌진흥공사, 농수축협에 위탁가능)가 주관하고 주택건축등 개인적인 사업은 주민이 시행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투자실적

91년 시범사업으로 2개지구 착공이래 95년까지 총 52개 지구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94년까지 사업에 착수된 32지구에 총 1,0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94년 부터는 국고지원으로 오페수시설사업을 병행추진케 되어 32억원이 추가되었다.

3) 사업추진결과

94년까지 착수한 32개 지구의 단지평균규모는 17,513평이고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896백만원(단지조성비 3,491백만원, 주택용자 1,896백만원), 입주세대는 평균 72세대이었다. 94년까지 완공한 택지의 분양율이 약 90%이 이르고 있으며 시범사업 2개지구의 택지 및 생활편리 만족도가 70%를 상회하여 사업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발전방안 검토

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경우 실제투자액수가 39억원으로 개발수요액수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융자규모도 실 수요의 10-20%에 그치고 있어 투자재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또 정주권개발사업은 구성 부문별 사업의 재원과 시행부처가 다르더라도 시행주체인 시·군의 사업시행단계수준에서는 통합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역을 중점개발하고 착수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야 하며 사업수행의 조직화·전문화를 도모키 위해 시군에 본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편성되고 전문기술인력이 양성·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수행에는 여러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6. 결 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투자재원의 부족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 및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의 노력이 결집되어 사업발전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걸쳐 과감하게 기도하여야만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시행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